

1 개요

천지왕본풀이는 처음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은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하늘 천지왕과 지상 총맹부인의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이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린 뒤에 이승 차지를 위하여 내기를 벌였으나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하는 바람에 인간 세상은 영원히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2 내용

천지개벽하고 인간 세상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해와 달이 둘씩이어서 사람들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죽을 지경이었다. 옥황상제 천지왕이 해와 달을 하나씩 먹는 꿈을 꾸고 인간세상의 총맹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갔다.

총맹부인은 가난해서 저녁 지을 쌀조차 없어 수명장자에게 쌀을 얻으러 갔는데, 수명장자는 쌀에 모래를 섞어 빌려주었다. 총맹부인은 여러 번 쌀을 씻어 밥을 지어 천지왕에게 대접하였으나, 천지왕이 뜬 첫술에 바로 모래가 씹혔다. 천지왕은 수명장자의 악행을 듣고, 벼락장군·벼락사자, 우례장군, 화덕진군·화덕장군 등을 불러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우고, 그 자식들도 벌레와 소리개로 변신시켜 버렸다. 그리고는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비로소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천지왕은 하늘로 돌아가면서 형제가 태어나거든 대별왕, 소별왕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다. 총맹부인이 증표를 요구하자 박씨를 주면서 자신을 찾을 때 이것을 심으라고 하였다. 총맹부인은 홀로 대별왕, 소별왕 형제를 낳아 길렀다. 형제는 자라 열다섯이 되어서당에 글공부를 갔는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형제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형제는 어머니로부터 천지왕이 아버지임을 전해듣고, 박씨를 심고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형제는 박 줄기가 용상에 감겨 있으니 용상을 타고 놀다가 그만 용상 왼쪽 뿔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임금은 왼뿔 없는 용상에 앓게 되었다. 이어 형제는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둘씩이어서 살기 어려운 것을 보고 커다란 활로 해와 달 하나씩을 쏘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맡기로 하고, 수수께끼, 꽃가꾸기 내기를 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별왕은 내기를 해도 이기지 못하게 되자 잠자기 내기를 하자고 해놓고 꽃을 바꾸어 놓아 승리를 가로채었다. 대별왕은 소별왕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앞으로도 살인, 역적질, 도적질, 간음 등 무질서가 계속되리라고 하였다.

③ 특징

정주병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전체적인 맥락이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한 편이다. 수명장자의 징치 과정이 들어있으나 그다지 상세하지 않다. 천지왕과 대·소별왕의 부자상봉도 분명히 처리되지 않았다.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하늘로 올라가 스스로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린 뒤에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후반부에서 천지왕은 사라지고 두 형제가 주도적인 구실을 한다.

해와 달을 조정하는 사양신화(射陽神話)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중국과 대만 등지에도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서 전승되어 왔다. 함경남도 <창세가>, <셍굿>, 경기도 <시루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핵심어

총멩부인, 대별왕, 소별왕, 활, 증표, 박, 수명장자, 벼락장군, 벼락사자, 우레장군, 화덕진군, 화덕장군, 용상, 벌레, 소로기, 이승, 저승, 수수께끼, 꽃가꾸기, 잠자기, 살인, 역적질, 도적질, 간음, 사양신화, 남중국, 대만, 함경남도, 창세가, 생굿, 경기도, 시루말, 해와 달, 천지왕

⑤ 원전 서지사항

천지왕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

천지왕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